다우코닝, 실리콘이 태양광 단가 낮춘다!

다우코닝(Dow Corning)이 실리콘(Silicone)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게탄 보거스(Gaetan Borgers) 태양광 사업부 글로벌 책임자는 태양 에너지의 킬로와트시(kWh)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게탄 보거스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 솔루션이야말로 태양 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 "이라면서" 다우코닝은 65년간 태양광 응용기술과 자회사 Hemlock을 포함해 태양광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태양 에너지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산업에서 오랫동안 메탈 실리콘과 모노실란이 주축이 돼왔으며 실리콘 접착제와 실란트(Sealant)는 극한 환경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발휘해왔다 "면서" 건축과 전자 산업에서 수십년간 증명돼왔으며 요즘은 태양광 모듈과 패널 제조에서 입증되고 있다. 실리콘은 태양광 기기를 보호하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실리콘 기반 소재를 사용하면 태양광 모듈이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4/19>